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7월 25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시설팀장 • 담당자 	최명환 ☎440-3581 서완근 ☎458-708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연기

- 주민대표는 영종주민, 공론화 과정 통해 최적의 입지 선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김진한)가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했던 위원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년 11월에 구성돼 총 7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그동안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중·동구 지역 약 5천 여개 지역을 도상 및 문헌 분석해 불용토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행위 제한, 배제구역 적용 등을 통해 입지가 가능한 후보지를 조사했다. 또 입지가 가능한 각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한 후 입지선정위원회 내부 논의와 토론 등을 통해 입지선정위원들의 사전 동의와 의결을 거쳐 5개의 후보지가 선정됐다.

그간 인천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냄에 따라 위원회는 7월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를 영종 주민 위주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서부권 자원순환센터는 영종지역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영종지역 주민 및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설명회를 추진하며, 선진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 아산·평택 주민편익시설 등 타 시도 및 국내·외의 자원순환센터와 주민편익시설 등을 주민들과 함께 견학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자원순환센터가 입지하는 지역과 입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과 자원순환센터가 입지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 편익 시설, 주민 숙원 사업비, 주민지원기금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민들과의 거리를 계속적으로 좁혀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2026년 생활폐기물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자원순환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입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마음을 열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